

가을철에도 기생충

검사와 투약이 필요하다



주 경 환

지금까지 범 국가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학생검변제도가 연 1회로 축소되어 가고 있는 때일 수록 학생이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각별히 가을 기생충검사와 구충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기생충의 감염상태는 한나라 국민 보건의 지표로 삼아 무방합니다. 더러는 국민보건 뿐만 아니라 한나라의 문화를 가늠하는 척도로 기생충 감염률을 이야기 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1960년대 우리나라의 기생충감염률을 보면 회충 하나만을 이야기 하더라도 80%이상의 전국민 감염률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일본 역시 1950년대에는 이에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생충의 관리를 위해 건협을 위시한 각계 각층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 기생충감염률 0%대의 시대를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경제수준, 보건의식, 보건상태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생충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회충의 감염률을 볼 때 우리나라는 1981년에 13%이었던 전국민 회충감염률이 이제는 10%이하, 아마 5%선까지 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동남아시아 여러나라는 아직도 80%이상의 회충감염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여기에서도 그 나라의 국력을 엿볼 수 있는 눈금이 된다고 보아 틀림 없을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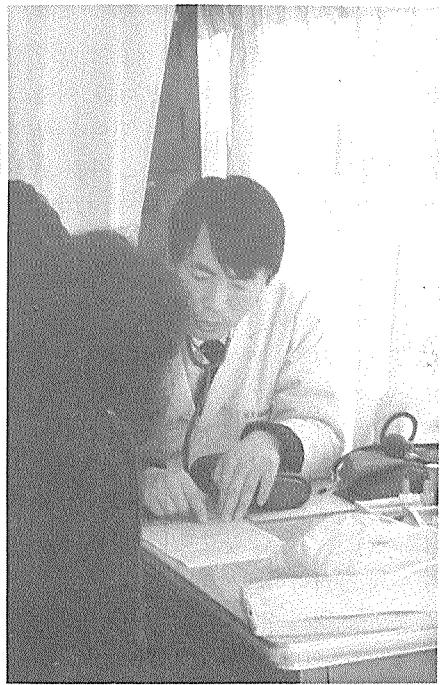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의 기생충 감염률은 이웃

일본의 그것보다는 아직 10년이상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보다 정확한 자료에 기초해 볼 때 1969~1973년의 일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생충의 관리에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가적으로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와 같지 않아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초, 중, 고 학생에 대해 1년에 2번씩 실시하던 집단검변 및 치료사업이 1년에 1번씩 하는 것으로 이미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각종 종합구충제의 판매량이 증가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비록 제한된 자료이긴 하지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는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흔히 알고 있기를 구충은 1년에 2번 봄 가을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중에 나도는 속설도 통념도 아

닌 당당한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는 정설입니다.

예컨대 회충의 경우 1년에 2번의 peak를 나타내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데 한번은 2~3월, 또 한번은 8~9월이라고 합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들은 이와같이 감염률이 peak를 나타내는 이유를 볼 때 2~3월의 것은 가을 및 겨울(대개 11~12월)에 감염되어 일정한 성숙기를 거쳐 2~3월에 peak에 달하고 또 다른 8~9월의 것은 초여름(5~6월)에 감염되어 이때에 이르러 최고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봄의 것인데 이에따라 구충을 1년에 1번만 한다면 봄에 해야 한다는 인식이 뇌리에 박혀 있지요. 물론 그보다도



이 시기로부터 날이 따뜻해져서 몸밖에서의 충란의 발육이 왕성해져 감염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보다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보면 지금부터가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비단 회충, 편충 등의 소위 토양매개성 기생충이 아니더라도 민물고기나 육기는 간흡충 등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생충이 한둘이 아닙니다. 낚시하는 사람이 철을 가려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만 낚시나 조그만 뜰에서 작은 생선 잡아 초고추장 찍어 한 잔하는 것이야 역시 출처 않은 계절이라, 이들이 간흡충에 걸리지말란 법이 없고 보면 지금 한 번쯤 대변검사를 받아 여름철에 걸린 기생충을 말끔히 씻어내고 건강한 긴 겨울을 맞는 것도 어떨런지요.

요충의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대체로 목욕을 자주하는 편이라 항문에 충란이 붙어 있는 경우도 겨울보다는 적겠지만 날이 추워지면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충은 대개 가족단위로 감염되며 집안에 한 명이 감염되어 있으면 가족 모두가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치료도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며 20~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반복해야 합니다. 그간 기생충관리사업이 회충에 집중되었던 탓으로 등한시되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것이 요충으로서 서울도 어린아이는 5% 이상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부 지방은 80% 이상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충은 불행하게도 대변 검사로는 진단이 되지 않고 항문주위도말법이라고 하는 특수검사를 통해서도 여러차례 반복검사해야 발견할 수 있으므로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전가족이 요충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충제를 동시에 복용하고 20~30일 후에 한번 더 복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생길 수 있는 약의 부작용, 독성이 거의 없다는 것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철을 타지는 않지만 유, 무구조충, 낭미충증 등 항상 경계해야 할 무서운 기생충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본이 오늘같이 낮은 수준의 기생충 감염률을 보이게 된 데에는 물론 당국의 적절한 조치와 경제, 문화수준의 향상도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기생충에 대해 인식을 하고 봄 가을로 대변검사를 받아보려 노력하였으며 구충제를 적절히 복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지금같이 범 국가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학생검변제도가 년 1회로 축소되어 가고 있을 때일 수록 학생 여러분이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각별히 가을철 구충제복용 및 대변검사를 철저히 해서 개개인의 건강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매우 우둔한 질문을 한가지 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구충제를 한 번이라도 드셔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필자=고려의대 기생충학교실·의박>